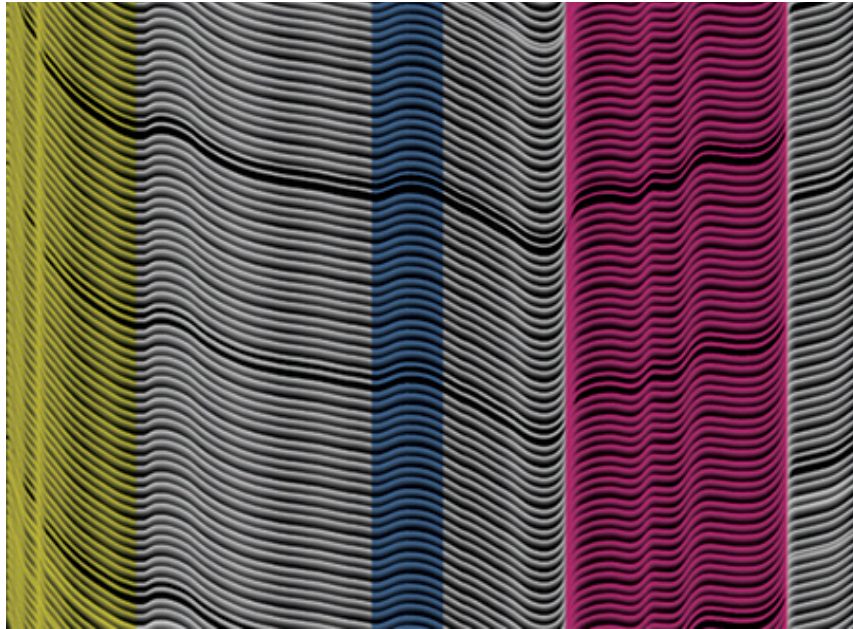


예술가들에게 '색'이란 무엇일까... 사비나미술관 '컬러 스터디' 전시회

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

입력 : 2015.08.03 21:36:39 | 수정 : 2016.07.13 18:30:57





작가 닐 하비슨이 아이보그란 장치를 이용해 음파를 색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모습(위 사진)과 이렇게 얻어진 '사무엘 니콜로슨의 초상화'(89.5x59.5cm, 잉크젯 프린트, 2013).

영국 작가 닐 하비슨은 아이보그(eyeborg)란 장치를 두개골에 영구 장착했다. 센서가 달린 2개의 안테나, 1개의 칩, 인터넷 연결 부분으로 구성된 이 기계는 흑백으로만 세상을 보는 전색맹인 하비슨에게 색을 음파로 변환시켜 전달한다. 작가는 자기 앞에 있는 인물의 눈, 코, 입, 피부, 머리카락에 안테나를 대고 색을 음파로 전달받은 뒤 이 주파수를 세로로 긴 그래프선 위에 기록함으로써 'sound portrait(소리 초상화)' 시리즈를 제작한다. 각각의 얼굴이 색에서 음으로, 다시 색으로 바뀌면서 악보와 같은 고유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다.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이보그 장치를 착용한 사진을 여권사진으로 사용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는 “나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바로 테크놀로지다”라고 말한다. 사이보그를 자처하는 그는 전화벨, 텔레비전, 사람 목소리 등 일상의 소리를 색으로 변환시킨 'colour scores(색 악보)' 시리즈도 선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 등이 색으로 재현된다.

하비슨의 작품은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컬러 스테디'전에 전시되고 있다. 예술가들이 색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험하는지 살펴보는 융·복합 전시로 11명(팀)의 작품이 나왔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플레이 메이커즈 랩,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색채연구실도 참여해 색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유명 사진작가 베르나르 포콩, 샌디 스코글랜드는 인위적인 색상과 연출을 통해 사진 매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다. 포콩의 '연못'(1990)에는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물이 들어 있다. 절망을 뜻하는 빨강은 기록 매체임에도 현실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는 사진의 이중적 속성을 가리킨다. 끊임없이 사진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져온 그는 1995년 사진 작업을 중단했다.

스코글랜드의 '웨딩'(1994) 역시 신랑 신부의 복장, 웨딩케이크 등 흰색이 쓰여야 할 자리에 빨강이 있다.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달콤하면서도 끈적거리는 첫 발걸음의 색깔인 셈이다.

문형민은 매월 발행되는 잡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와 색을 추출한 뒤 순서대로 연결시켜 단어를 색으로 바꾸는 'by numbers' 시리즈를 해왔는데, 이번 전시를 위해 사비나미술관의 10년치 기획전시 도록 21권에서 17만1729개의 단어를 추출하고 상위 10개 단어를 색으로 변환한 색띠 작업을 선보였다. 한편 진달래&박우혁의 작품 'WH'는 사선 형태의 네온으로 2개의 알파벳을 형상화했다. 'WHAT' 'WHO' 등 의문사의 약자인 'WH'는 형태와 색이 겹치면서 무한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와 색(빛)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10월23일까지. (02)736-4371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